

제국주의론과 수난의 역사관*

— 청말·민국시기를 중심으로

차 태 근**

<목 차>

1. 서론
2. 제국주의와 근대/문명
3. 전후(戰後) 제국주의 개념의 변화
4. 불평등조약과 피압박의 역사
5. 결론: 제국의 기억과 민족주의의 탈주

1. 서론

중국의 근대 이후 역사에서 제국주의는 수많은 근대 개념어 가운데서도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한 타국가나 민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패권 확장에서부터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개념이 중국의 근대 이후 역사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의 근대 역사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인민의 동원 및 그 목표를 지시하기 위한 주요 부호로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국에서 각축을 벌인 중국의 각 정치세력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한 주권의 회복을 민족 혹은 국족의 사명으로

* 본 논문은 2019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ctgksy@inha.ac.kr)

제시하고 정치적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았다. 근대 이후 중국의 가장 주요한 타자로 설정된 제국주의는 중국의 주체성을 구성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부정과 비판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의 대상이었다.

근 1세기에 걸친 중국의 끊임없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중국에게 있어 제국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 보인다. 19세기 중반 전후시기에 서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중국은 그 이후의 역사를 제국주의에 의해 주권을 침탈을 당하거나 압박을 받아 온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억압과 피억압, 선과 악의 이원대립적인 인식하에서 제국주의와 그 대립에 위치한 주권은 근대적 가치개념의 최고 정점에서 제반 가치를 판단하는 최종심급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현대 시기 중국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중국의 제국주의 담론은 중국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에 제국주의 개념이 소개되어 본격적으로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이른바 제국주의 시기라 불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제국주의론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서구, 그리고 일본에서도 새로운 시대적인 개념으로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제국주의 담론은 주권과 문명론, 진화론(적자생존) 등 개념과 민족주의 개념의 상호 지시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의미나 평가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1920년 이후 민국시기로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비롯한 사회주의 시각의 제국주의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1924년 이후부터 1930년대 초 시기에 불평등조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20세기 전형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40년대 말 냉전시기와 개혁개방 이후 시기로서 미국을 주요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시기는 불평등조약 폐지,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의 추이에 따라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정도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1세기에는 제국주의론을 대외적인 비판보다는 주로 대내적인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어, 제국주의 담론이 전에 비해 강세 담론에서 약세 담론으로 변화

하였다. 하지만 그 담론은 여전히 중국의 역사 인식과 세계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통치 권력의 합법성을 위한 논리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제국주의 담론이 지니는 역사성을 통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제국주의 담론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중국 제국주의론의 기본적인 특징이 형성된 민국시기, 특히 1920년대 중반의 제국주의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상호 경쟁하던 민국시기에 공산당은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가 제국주의에 대한 소극적 저항 혹은 투항이나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지만,¹⁾ 국민당 정부 역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주요 근거로 삼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정책을 추구하였다. 민국시기 국민당과 공산당의 경쟁은 민족주의 대표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이론적 토대였던 제국주의론은 두 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공동의 토대였다. 즉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 중국이든 국민당 정부든 공히 근대국가의 수립을 위한 이념적인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1931년 일본 관동군에 의해 9·18사건이 발생 이후 중국공산당은 <關於日本帝國主義強占滿洲事變的決議>를 비롯하여 9월 20일, 30일 연이어 결의문과 선언을 발표하고, 장제스의 국민당이 일본에 대해 “무저항주의”, “양보와 순종”과 이른바 “침착한 외교” 등 타협과 투항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대륙)중국의 역사에서 민국시기 국민당 정부를 제국주의와 타협한 주구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국공합작 이전 중국공산당의 선언과 주장은 국민당의 공산당에 대한 태도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했다. 즉 국민당은 공산당 섬멸을 “외세 배척”의 전제로 삼았는데, 공산당도 “지주계급의 국민정부를 전복해야 비로소 진정한 혁명적인 민족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려면 반드시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국민당을 타도해야 한다.”는 등 국민당과 국민정부의 부정을 항일의 전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는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第七冊(1931),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416-430쪽; <中央爲目前反日討蔣的祕密指示信>(1935.10),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爲日本帝國主義併吞侵華北及蔣介石出賣中國宣言>(1935.11.13.),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第十冊(1934-1935),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561-576쪽.

2. 제국주의와 근대/문명

중국에 제국주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00년을 전후한 시기로 량치차오(梁啓超)가 중심이 되어 소개하고 중국의 정치 및 사상담론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²⁾ 당시 제국주의는 영미권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중국에서의 제국주의론은 바로 일본을 경유하여 수용한 영미의 제국주의 담론의 일부였다. 수용된 지식의 자원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쿠세고지(獨醒居士)라는 필명의 《시무삼론(時務三論)》과 우키타 카즈타미(浮田和民)의 《제국주의(帝國主義)》,³⁾ 라인슈(Paul S. Reinsch)의 《19세기말 세계정치(十九世紀末世界之政治)》⁴⁾이고 다른 하나는 고토쿠 슈스이

2) 량치차오의 제국주의론의 소개에 대해서는 즐고 <20세기 초 동아시아 제국주의론의 세 계인식 — 라인슈(Paul S. Reinsch)의 《세계정치》 및 번역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2018.8, 183-212) 참고.

3) 이 책은 라인슈(Paul S. Reinsch)의 *World Politic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s Influenced By The Oriental Situation*(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London, Macmillan and co, 1900)과 기딩스(Franklin H. Giddings)의 *Democracy and empire, with studies of their psychological, economic, and moral foundations*(New York: Macmillan, 1900), 그리고 우키타 카즈타미(浮田和民)의 <일본의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이상> 등을 주로 참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제국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라인슈의 견해를, 제국주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기딩스와 우키타 카즈타미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수록된 세 편의 글 중 <제국주의>는 1901년 11월 5일-23일 사이에 일본의 《國民新聞》에 연재되었던 것을 재수록 한 것으로, 연재 당시 《청의보(淸議報)》 제97-100책(1901.11.11-12.21)에도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도쿠세고지라는 필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청의보》에 연재된 글과 1902년 제국총서로 발간한 《帝國主義》(出洋學生編輯所編譯, 商務印書館)가 동일한 내용인데, 그 저자로 “日本 浮田和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쿠세고지와 우키타 카즈타미의 주장이 거의 대동소이하여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키타 카즈타미가 자신의 또 다른 글에서 도쿠세고지의 글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언급하며 마치 자신과 다른 사람인 듯 언급한 적이 있다(浮田和民, <帝國主義の理想>, 《國民教育論》, 民友社, 1903). 도쿠세고지의 글을 번역한 중국 유학생이 당시 저자를 단순히 추론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여 명시한 것이라면 우키타 카즈타미가 제국주의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필명으로 제3의 인물을 의도적으로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앞의 논문과 王保賢의 <關於“漢譯名著”《帝國主義》的出版時間>(《中華讀書報》, 2019.12.18.) 참조.

(幸徳秋水)의 《이십세기의 괴물 제국주의》이다.⁵⁾ 이 중 전자가 제국주의를 역사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시대적 산물로 보고 그 조류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창했다면⁶⁾, 후자의 경우는 존 로버트슨(John M. Robertson)의 《애국주의와 제국》을 참조하여 애국심, 군국주의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제국주의론의 소개는 모두 량치차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던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⁷⁾ 역자의 정치적인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당시 제국주의론에 대한 중국의 양가적인 복잡한 태도와 곤궁한 처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서구의 제국주의론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국주의를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인 조류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산물 혹은 현상이든 아니면 국가 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어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든 모두 20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둔 시점에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시대적 특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일치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시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제국주의 조류에 대한 거부는 한 민족이나 국가의 쇠퇴 혹은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자세는 시대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각 민족 혹은 국가나 국민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인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⁸⁾ 한편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제국주의가

4) 靈綬著, 羅普譯, 《十九世紀末世界之政治》, 廣智書局, 1902.

5) (日本)土佐幸徳秋水撰述, 趙必振譯, 《二十世紀之怪物帝國主義》, 廣智書局, 光緒二十八年(1902).

6) 줄고, 앞의 논문 참고.

7) 羅普는 물론 제국주의 비판 및 사회주의 사상 관련 서적을 번역한 趙必振 모두 위 서적의 번역 당시 량치차오가 주관하던 《청의보》와 《신민총보(新民叢報)》의 편집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出洋學生編輯所를 이끌던 戡翼輩는 후에 혁명파의 입장을 견지하기는 했지만, 위 번역서 《帝國主義》가 처음 《청의보》에 연재되었던 것이라면 번역 당시 량치차오와도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 제국주의론의 소개는 보황파와 혁명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전, 량치차오가 바로 孫文(孫文)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였으며,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8) 줄고, 앞의 논문, 200-206쪽.

특정한 소수 세력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다수의 대중들을 기만적으로 동원하여 세계를 무한 경쟁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국가의 인구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취해지는 군국주의나 애국심 등이 바로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동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대외적으로 타국가나 민족의 권리 침탈과 약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군사력을 위한 재정낭비와 맹목적인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요구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⁹⁾

이러한 두 상반된 제국주의론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는 당시 실제적인 제국주의 추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러한 인식을 구성하는 언어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제국주의 개념이 단순히 타 국가나 공동체의 주권과 권리에 대한 침탈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일련의 새로운 중국어 어휘체계를 통해서였다. 거의 동시기에 중국어 어휘집에 편입되기 시작한 진화/천연(天演)과 적자생존론, 문명과 야만론, 그리고 민족주의론 등은 제국주의와 함께 중국을 분할로 몰아가는 19세기 말 국제정세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이었다. 이 개념들은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에 이은 러시아와 독일의 중국에서의 세력권의 확장으로 본격화된 중국의 분할 시도, 그리고 의화단의 난에 따른 8개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담은 신축조약은 물론, 19세기 이래 중국의 서구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그 중에서 진화론과 문명론이 지구사 혹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변화 원리에 해당된다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그러한 변화원리에 따라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출현한 전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개념들이 구축한 세계 인식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그것이 20세기 혹은 지금까지 중국 통치자의 세계인식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통

9) John M. Robertson, *Patriotism and Empire*, London, Grant Richards, 1899; 幸德秋水撰述, 趙必振譯, 《二十世紀之怪物帝國主義》, 廣智書局, 光緒二十八年(1902). 서구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비판을 한 홉슨의 제국주의론은 1902년에 출판되었지만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소개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일본과 중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아하지만, 어쩌면 당시 제국주의 정책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던 일본의 제국주의론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해서 잘 알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에 소개된 제국주의론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당시 제국주의론은 역사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진화론적인 입장에 근거하고 있었다.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론의 이론적 친화성은 단순히 인류사회가 진보한다는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화의 방법과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다. 우선 스펜서와 같은 사회진화론자는 적자생존과 우생열패를 인류사회의 상시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진화의 추동력이라고 간주함으로써 국가 간 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에서의 인류의 상호 경쟁을 정당화했다. 또 사회진화론은 인류의 역사는 동일한 방향을 향해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구상의 각기 다른 종족과 문명단위들이 각기 다른 지능과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서구문명은 인류문명이 도달한 최고의 수준이며,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보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종족과 집단, 즉 야만 혹은 반야만적인 단계의 인류는 서구의 지배를 받거나 서구 문명에 의해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종주의와 문명론에 기반한 사회 진보 혹은 역사발전론이 바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담론의 주요 이론적 근거였다.

둘째는 제국주의의 본질은 민족주의라는 점이다. 당시 제국주의론 의하면, 제국주의의 주체는 민족이며 민족의 발전과 경쟁과정에서 민족의 현재 및 장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외적인 팽창을 추구한다. 여기서 민족의 개념이나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는 명확하지 않았다. 홉스봄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 등장한 새로운 민족국가들 역시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공동의 문화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각기 달랐다.¹⁰⁾ 그러나 당시 제국주의론에서 주목한 것은 제국주의의 주체로서의 민족은 단순한 종족과는 달리 국민국가라는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었다. 18세기 유럽의 정치혁명을 통해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10) 에릭 홉스봄 저,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8, 제2장 참고.

에서 민족주의가 출현하였으며,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국가의 내부적인 발전을 통해 인구과잉과 생산 및 소비의 한계라는 내적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세력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 제국주의라고 보았다. 즉 제국주의는 민족주의의 팽창이자 새로운 발전단계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단계라고 규정한 레닌과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이지만, 서구 근대문명의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이자 세계의 경쟁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문제적인 역사과정으로 파악한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 문명론, 인종론, 그리고 민족주의론은 190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사상담론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개념들이었으며, 제국주의론은 바로 이러한 개념이 주조하는 새로운 세계의 관념을 통해 중국에 수용되었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의 관점과 태도는 바로 상기 개념들 및 그것으로 구성된 세계의 관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와 중국의 관계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무술변법의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량치차오였다.

량치차오는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번역한 옌푸의 《천연론》과 일본 망명 후 일본의 진화론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문명론과 민족주의, 제국주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¹¹⁾ 그는 자신이 편집을 맡고 있던 《청의보》와 《신민총보》에 일본의 도쿠세고지와 우키타 카즈타미의 제국주의론을 적극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대경쟁이라는 제국주의 시대에 중국의 운명과 대응방법을 자신의 입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제국주의는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시대적인 조류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다고 보았다. 그는 제국주의는 군사적인 침략이나 다양한 물리적 압력 하에 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특징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가 강조한 국가를 멸망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군사적인 위협이나 직접적인 영토에 대한 침략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권의 분할이나 침해를

11) 趙京華, <福澤諭吉“文明論”의等級結構及其源流>, 劉禾主編, 《世界秩序與文明等級》, 三聯書店, 2016, 209-234쪽.

가리키는데, 그는 이것이 오히려 당시 제국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에 더 가깝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팽창의 주체를 보면 왕왕 한 국가의 정부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민 개개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의 <신민설(新民說)>에서 주장한 국민성의 개조 방향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를 주도한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신민설>에 제국주의 시기에 세계무대에서 경쟁 가능하고 세계 문명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양성을 주장한 우키타 카즈타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

한편 량치차오의 제국주의 담론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제국주의의 행위를 지지하거나 승인했다기보다는 그의 비판의 초점이 주로 중국의 내부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구 열강 및 일본에 의한 중국 영토와 주권의 침탈을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이는 그들의 침략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인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국주의 침략은 오히려 중국 국민이 스스로 분발하여 변화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자극제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량치차오가 서구 열강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에서 서구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진화론이나 문명론 등 서구 담론을 자신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보았을 때,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민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국제법의 준수나 인류문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였다.¹²⁾ 이른바 인류 문명

12) 제국주의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이외에 문화적, 윤리적 혹은 문명적 측면에서 긍정한 것은 기딩스와 우키타 카즈타미에서 잘 보여준다. 기딩스는 제국주의 확장을 앵글로색슨 민족이 발명한 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는 것은 그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주요한 논거였다. 우키타 카즈타미는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에 입각하여 생존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이를 위한 생존경쟁 역시 자연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제국주의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군사적 침략을 도모하는 침략적 제국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발전에 기반한 자연적 팽창주의로서 인민이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우키타는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자신이

을 위한 “백인의 의무”라는 설은 서구 중심주의이기는 하지만 서구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그것을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량치차오는 서구의 담론 중 중국문화와 중국인의 능력, 국민성을 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가의 기준인 문명, 특히 서구 근대적 문명이 중국이 학습해야 할 대상이자 가치평가의 기준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즉 그에게 있어 제국주의는 침략자이기에 앞서 중국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교사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의 정치개혁 및 혁명에 대해 량치차오와 관점을 달리하던 이른바 혁명과 역시 제국주의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보여준다. 20세기는 민족주의의 팽창시기, 즉 민족적 제국주의 시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량치차오 등과 관점의 차이가 없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모태로서, 20세기는 민족 대경쟁, 즉 제국주의의 “역조(逆潮)”가 중국을 무대로 경쟁하는 시대라고 보고, 제2류 국가는 경쟁과 진취심, 민족주의로 대항하지 않으면 거의 존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¹³⁾ 또 민족 팽창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혁명파에 따르면 제국주의가 출현하게 된 사상적 요인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생존한다는 원리에 따라 장차 세계는 “문명인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이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러스트의 출현으로 경제상의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향후 한 민족의 존망은 바로 경제의 경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경제 경쟁의 특징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동력에 의거하고 있어 그 여파는 매우 크고 급속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 밖에 인구의 급증

추상하는 제국주의는 침략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일국의 독립을 견지하면서 세계 문명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의 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는 “대내적으로는 제국주의 정신으로 인민을 교육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민들이 자유롭게 세계 각지에서 산업상의 이익을 향유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그러한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량치차오 역시 서구의 군사적 힘을 내세운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략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의 역량을 통한 민족의 대외적인 팽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가의 완전한 주권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세계 패권경쟁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13) 鄧實, <政治通論外篇4: 帝國主義>, 《政藝通報》, 190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정책이 중요한 국가의 문제로 부상한 점, 교육의 보급으로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어 타 국민을 능가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적절하고 계획적인 전략의 구사 등이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이유이거나 힘이라고 보았다.¹⁴⁾

이와 같이 혁명론자들이 제국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 것은 중국이 처한 시대적인 곤경, 또는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 조류의 성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제국주의 담론을 한족의 반만주족 민족혁명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이었다. 혁명파는 중국인 및 중국문명에 대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인 비판의 논리를 한족의 관점에서 만주족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논리로 비틀었다. 우선 문명론과 인종론의 관점에서 만주족을 야만시함으로써 우월한 한족에 대한 열등한 만주족의 지배를 비정상적이고 역사의 진보에 반하는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쟁에서 중국의 열세와 위기는 무능한 만주족의 통치로 귀결시키고, 서구 열강의 침탈에 의한 중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족 민족주의를 발양하여 우선 무능하고 열등한 만주족 지배를 타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중국이 쇠락하여 서구 열강에게 주권을 침해당하고 분할의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당시 입헌파와 혁명파 모두가 주목한 문제였다. 다만 량치차오가 주로 중국의 문화, 제도, 풍속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은 반면 혁명파는 이민족인 만주족 청 왕조의 무능과 매국행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서구 열강이 중국을 비판하던 주요 근거들, 중국의 쇠국정책과 외국인 혐오, 자립 및 자강능력의 부재 등에 대해 그 원인을 중국이 아니라 만주족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중국의 위기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제국주의의 침탈이 아니라 만주족이 자초한 무능함과 비굴함에 있다.¹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해혁명 이전 중국의 제국주의 담론은 이론적인

14) 余一, <民族主義論>, 《浙江潮》 第5期, 1903.6.15, 31-32쪽.

15) 精衛, <駁革命可以召瓜分說>, 《民報》 第六號, 1906.7.25, 17-23쪽.

측면이나 정치적 담론의 측면에서 모두 이후 살펴 볼 1920년대의 제국주의 담론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국주의는 타국가나 민족에 대한 침략으로서 비판적인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이나 비판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를 역사발전 과정의 불가피한 산물이거나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중국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제국주의를 민족주의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인식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자강과 자립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삼는 중국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상실했다. 즉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국주의에 대항할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공색해졌던 것이다. 제국주의는 근대성을 구성하는 제반 특성들과 함께 일체를 형성하여 분리가 불가하였다.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긍정적인 의미의 타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내셔널리즘으로 정당화되었고, 국민국가의 힘은 내셔널리즘이라는 상징적 체제로부터 권위를 얻었다.”¹⁶⁾ 따라서 당시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강렬한 비판은 류스페이(劉師培)와 같은 민족주의와 국가를 모두 부정하는 무정부주의 입장이었다.¹⁷⁾

16)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8, 56쪽.

17) 1907년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던 류스페이(劉師培)는 고토쿠 슈스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국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근세 이래 구미 각국은 제국주의를 떠벌이고, 그 병력과 재화를 내세워 세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는 국가의 권력이 확장되어 국가의 위엄을 해외에서 떨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가가 상업을 확충하고자 타국의 재원을 빼앗아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원인이 축적되면 곧 살상의 세계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의를 실행하는 자는 두 가지를 내세워 스스로를 포장하고자 한다. 즉 강권과 애국심이 그것이다.” 劉師培, <無政府主義之平等觀>, 《天義》 第5卷, 1907.8.10.

3. 전후(戰後) 제국주의 개념의 변화

중국에서 제국주의가 사상 및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동서양을 포함하여 학술과 사상의 대전환을 야기하였는데, 그 주요 특징은 바로 19세기 서구 근대담론, 특히 제국주의론이 바탕으로 삼고 있던 제반 이론과 사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성찰과정에서 적자생존의 진화론과 개인주의가 인류의 각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조장한 요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그것에 기반한 서구 중심의 문명관도 회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판이 서구의 근대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화론이나 우생학은 전후에도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그 변화의 방향과 목적, 주체가 19세기 서구 문명의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새롭게 설정되면서 인류사회의 발전 경로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가 제시되었다. 이른바 전후의 사회개조론은 새로운 사회조직 원리에 기반을 둔 신사회 혹은 신문화의 건설을 의미했다. 이러한 새로운 학술과 사상의 조류 하에서 제국주의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후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비판은 제국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적 논리와 논거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 이러한 논리를 제공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였다. 20세기 초 이후 사회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20세기의 세계적인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특성으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존 홉슨의 《제국주의론》(1902), 루돌프 힐퍼딩의 《금융자본론》(1910),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1913), 카를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1915-191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기 논점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과 중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라인슈나 기딩스의 제국주의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라인슈와 기딩스는 제국주의를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의 확장에 따른 국가의 국제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국가정책에서 고려할 내용에는 국내 경제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창출, 예를 들어 수출시장과 자원공급처, 과잉인구 이주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선택 혹은 조정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자들은 카우츠키를 예외로 하면,¹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필연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의 제국주의론은 전후 중국의 학술 및 정치계의 제국주의 담론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할 정도로 민국시기 제국주의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전후시기에 중국에서 제국주의론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담론화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전후문제를 처리과정에서 서구 열강에 대한 실망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파리강화회의를 통해 산둥(山東)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당시 제기된 민족자결주의는 중국을 비롯한 피억압민족의 권리회복을 정당화하는 공리(公理)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파리강화회의에서 보여준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은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독일이 영유했던 산둥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은 구미 열강의 전후 처리 방법과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

18) 카우츠키에 따르면 초제국주의론은 카르텔의 정책을 해외정책에 이식시킴으로써 국제적 금융자본에 의해 세계를 공동 착취하기 위한 주도적 자본주의 열강들의 정책이다. 카우츠키는 연합한 세계 카르텔이 자본주의체제라는 틀 내에서 세계전쟁의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체제가 아니라 주요 정부들이 취하는 정책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게 되었다. 둘째, 중국에서는 일본의 21개조 요구 및 파리강화회의에서의 산둥문제 처리로 대중적 민족주의가 출현하였으며, 서구열강과 체결한 이른바 불평등 조약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5·4운동 이후 중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동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바로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는 대외적인 대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서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내 각 정치세력들은 민족주의 이슈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다. 셋째, 조약개정에 대한 서구 열강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광둥 국민당과 베이징 정부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서구 열강이 베이징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쑨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은 국공합작과 국민당 개조 등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하였다. 넷째, 소련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하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세계혁명과 민족문제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소련의 관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파리강화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반대로 한계를 보여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실망한 이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의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관점으로서 주목을 받았다.¹⁹⁾ 이와 같이 전후 중국 내 민족주의가 고조되어가는 과정에서 1924년 레닌의 사망, 1925년 쑨원의 사망 및 유언, 그리고 상하이의 영국군이 중국인을 살상하여 촉발된 5·30사건을 계기로 중국 학술 및 정치계에 제국주의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며 많은 반향을 낳았다.

우선 20세기 20-30년대에 중국에 소개된 대표적인 제국주의론은 레닌의

19) 제1차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특히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제3코민테른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는 胡繼純·謝德風 編著, 《民族自決問題》, 商務印書館, 1937, 제3-4장 참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의 주권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주민들의 이해를 공평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보편적인 민족의 자결을 중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식민지의 자립과 독립에 대해서는 주로 유럽지역의 억압민족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레닌과 제3코민테른의 민족자결주의는 주로 유럽열강과 일본의 지배를 받는 아시아·아프리카 약소민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실망과 소련이 제창하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에 대해서는 쑨원의 삼민주의 참고, 孫文, <三民主義>,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等 合編, 《孫中山全集(9)》, 中華書局, 1986, 223-225.

《제국주의론》²⁰⁾과 미하일 파블로비치(Mikhail P. Pavlovich, 1871-1927)의 《제국주의 정치의 기초》,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그리고 독일인으로서 일본에서 소련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리하르트 조르게(Richard Sorge, 1895-1944)의 《신독일 제국주의》, 부르크(布魯克)의 《제국주의론》과 같이 모두 사회주의자의 대표적인 제국주의론이거나 국제주의자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의 《경제 제국주의》 등이었다.²¹⁾이 가운데 레너드 울프와 부하린의 저서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레닌의 제국주의 관점을 토대로 제국주의를 정의하거나 해석하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진입하여 독점체를 형성하였다. 둘째,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셋째, 상품수출 외

20) 중국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소개는 1924년부터 《民國日報·覺悟》에 <帝國主義>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연재된 이후, 1925년에 단행본 《帝國主義淺說》(列寧著, 李春蕃譯, 沈澤民校訂, 上海)이 출판되었다. 葛靜波·張昭軍, <國民革命時期列寧《帝國主義論》的譯介與論爭>, 《中共黨史研究》2019年09期 참고. 이외에 필자가 수집한 번역본으로는 《帝國主義論》(列寧原著, 吳清友譯, 桂林新知書店, 1937)과 《帝國主義論》(列寧著, 번역자 미상, 中原新華書店, 1949.3.)이 있다.

21) Mikhail Pavlovich, *The foundations of imperialist policy: a course of lectures read to the academy of the general staff in 1918-1919*, London: Labour Publishing Company, 1922. 이 책은 1926년 국민당의 후한민(胡漢民), 왕징웨이(汪精衛) 등의 지지를 받으며(번역본 江精衛 서문 참고) 번역되어 《帝國主義之政策的基礎》(巴魯魯著, 朱則譯,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宣傳部出版)로 출간되고, 1933년에 다시 《帝國主義之諸家學說》(拔夫羅維季著, 王斐蓀譯, 新生命書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19세기 제국주의론의 사상적 기초 중 하나인 고비노(A. D. Gobineau)의 인종론과 니체 학설을 소개하고 나서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제국주의론의 핵심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국민당을 포함하여 중국의 지식계에서 제국주의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도서였다. 창수린(常書林)의 《帝國主義與中國》(世界書局, 1927)은 바로 파블로비치의 저서 중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제국주의의 중국에 대한 침략을 분석하고 있다. 그 외의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新帝國主義論》(桑特爾(조르제)의 설명인 Richard Sonter의 음역)著, 劉沅儀譯, 春秋書店, 1930(원저는 *Der neue deutsche Imperialismus*(Hamburg: C. Hoym, 1928)). 《世界經濟與帝國主義》(布哈林著, 楊伯愷譯, 辛墾書店, 1930); 《帝國主義論》(布魯克(蘇)等合著, 鍾原昭譯, 上海雜誌公司, 1937); 《經濟帝國主義論》(華爾富著, 謝義偉譯, 上海: 商務印書館, 1931(원저는 *Economic Imperialism*, London: The labour publishing co, ltd., 1921)). 이 중 레너드 울프는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운 도덕적, 정치적 책무, 즉 미개인의 문명화라는 사명을 비판하고 제국주의의 동기는 경제적인 면에 있음을 아프리카,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에도 자본수출이 더욱 현저하게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넷째, 국제적 독점자본가단체가 출현하여 세계를 분할한다. 다섯째,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 여섯째, 제국주의는 소수의 민족들이 더 많은 약소민족에 대한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부패하고 기생적인 자본주의이다. 즉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하에 자본수출을 위주로 하는 독점자본주의로서,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세계분할과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분할이 완료된, 부패하고 기생적인 자본주의가 붕괴 직전에 놓인 최후의 발전단계이다.²²⁾ 레닌의 이러한 분석은 내용 서술의 평이함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주제는 결코 대중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인 지식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국주의의 성격보다도 그 지배의 결과가 바로 직전의 세계대전이나 중국의 당면문제를 해석하는데 유익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그의 민족문제에 관한 테제와 연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레닌의 민족문제에 관한 테제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국주의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 1920년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 2차 총회에서 발표된 레닌의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 초고(Preliminary Draft Theses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 및 그에 대한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나벤드라 나트 로이(Manabendra Nath Roy, 1887-1954)의 보충문건²³⁾이었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관계와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에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을 논한 이 문건들은 특히 피억압 민족의 근대화 문제를 제국주의 정책과 대립적인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논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는 소수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제국주의 세력과 다수의 피억압적, 종속적인 민족(전 세계인구 17억 5천만 가운데 12억 5천만)으로 구분되

22) V. I. 레닌 저, 남상일 역,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986, 122쪽.

23) 成則人(沈澤民), 《第三國際議案及宣言》, 廣州人民出版社, 1922. 중국공산당은 1922년 이 책자를 포함한 12종의 혁명관련 자료를 중국공산당의 출판기구인 인민출판사에서 각각 3000부를 발행하였다.

며, 금융자본과 제국주의 시대는 바로 다수의 피억압 민족이 식민 노예와 금융 노예의 상대로 전락한다. 피억압 민족들 대부분은 직접적인 식민지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란, 터키, 중국과 같이 반식민지 상태의 국가도 있다.²⁴⁾ 둘째, 유럽자본주의가 그 기본 역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와 종속국가에 대한 착취 때문이며, 식민지의 시장과 식민착취를 위한 광대한 지역이 없으면 자본주의 열강은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식민통치의 소멸과 종주권 내의 무산계급혁명은 반드시 유럽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시킬 것이다. 셋째, 외국 제국주의가 동방민족을 강제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동방민족의 사회경제가 유럽 각 민족과 같이 발전할 수 없었으며, 제국주의가 식민지 공업발전을 저해하여 진정한 무산계급의 출현도 지체되었다. 넷째, 초기 식민지 지역의 혁명은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경제발전의 수준,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숙도에 따라 혁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선봉대가 그 혁명운동을 이끈다면 혁명대중은 점차 혁명적 경험을 통해 정확한 노선을 따라 사회주의의 소기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제국주의를 민족주의가 발전하여 불가피하게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재적인 경제논리로 설명하고, 또 민족을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계급간의 대립으로 균열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억압민족이 민족주의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약소민족의 근대화의 지체 원인이 그 민족의 내적인 역량의 한계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적인 수탈에 있다고 봄으로써, 근대화의 추구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사이에 존재하던 기존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리적 곤경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바로 1920년대 이후 중국에서 민족주의-반제국주의가 사상적, 정치적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24) 列寧, <民族和殖民地問題提綱初稿>, <民族和殖民地問題委員會的報告>,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編, 《共產國際, 聯共(布)與中國革命文獻資料選輯》(1917-1925),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113-118, 122-127쪽.

25) 羅易, <關於民族和殖民地問題的補充提綱>,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編, 위의 책, 119-121쪽.

할 수 있다.

민족주의-반제국주의 논리는 중국 공산당만이 아니라²⁶⁾ 쑨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의 혁명 및 국가건설 논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24년 쑨원의 《삼민주의》 강연 중 민족주의는 바로 레닌의 민족문제 및 제국주의에 대한 관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잖은 유사성을 보여준다.²⁷⁾ 먼저 쑨원은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을 러시아 제국주의의 전복이자 유럽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깨뜨리는 것이며, 공리에 의거하여 강권을 타도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²⁸⁾ 또 제1차 세계대전은 야만 대 문명의 전쟁, 강권 대 공리의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며, 전쟁의 종결도 한 제국주의가 다른 제국주의에 대해 얻은 승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²⁹⁾ 다만 세계대전으로 결국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며,

26) 레닌의 민족문제 관련 테제에 대한 중국 사회주의자와 공산당의 태도와 수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1922년 중국 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이다. 이 선언문은 아편 전쟁 이후 중국 역사를 국제 제국주의의 통제하의 식민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中國共產黨第2次全國代表大會宣言>, 中共中央統戰部編, 《民族問題文獻匯編》,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11-15쪽.

27) 가장 큰 차이는 제국주의에 개념에 대한 인식이다. 쑨원은 제국주의를 정치력으로 타국을 침략하는 주의라고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정치력은 단순히 타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정치적 간섭내지 지배만이 아니라 경제적 패권의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역사적인 범주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일례로 그는 중국의 역사를 속국이나 조공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역사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방법도 무력이나 강제를 통한 패도와 자발적인 동화와 귀의를 통한 왕도의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국으로서의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에 입각해 19세기 이래 조공국과 속국의 독립과 분할을 제국주의에 의한 중국 영토의 상실로 해석하고 있다. <三民主義>, 《孫中山全集(9)》, 199-200, 215, 221쪽. 또 쑨원의 제국주의 관점이 사회주의 관점과 다른 또 하나는 그가 비록 경제적인 침탈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자립노선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제국주의” 열강의 협력과 지원을 받는 대신 정치적 측면에서의 주권회복을 강조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중국의 정치적인 대등한 주권이 회복된다면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적 침탈(이른바 종속이론에서 말하는 후진적인 저개발국의 선진국가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크게 문제된다고 보지 않은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A. James Gregor and Maria Hsia Chang, *Marxism, "Sun Yat-sen, and the Concept of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55, No. 1 (Spring, 1982), pp. 54-79 참조.

28) <三民主義>, 《孫中山全集(9)》, 191-193쪽.

29) <三民主義>, 《孫中山全集(9)》, 224쪽.

이를 계기로 세계의 피억압민족이 각성하여 소수의 제국주의에 대해 저항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³⁰⁾ 한편 쑨원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중 주목할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 방식으로 경제적인 침략을 더 강조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침략은 열강이 타국을 멸망시키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서 20세기 초 량치차오가 이미 경고했던 것이지만,³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대 이래 제국주의론이 주목한 것은 정치적 지배와 분할은 바로 경제적인 식민지화를 위한 수단이고, 제국주의의 목적은 독점적인 금융자본의 지배에 있다는 점이었다. 쑨원도 경제적인 압박이 정치적인 압박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조선이나 베트남과 같이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완전히 식민지화된 민족에 비해 중국은 일정 정도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식민지(半植民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여러 제국주의에 의해 동시에 수탈을 당하는 노예상태이자 차식민지(次植民地)라고 주장하였다.³²⁾

그러나 1920년대 국민당의 제국주의에 대한 보다 정리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1924년 공산당과 쑨원의 제창으로 성립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 국민회의에서 국제문제 결의문의 초안을 담당했던 왕징웨이

30) <三民主義>, 《孫中山全集(9)》, 225-226쪽. 이러한 인식하에 쑨원은 제국주의 연합전선에 대항하는 세계 약소민족의 반제연합전선을 주창하였다. <關於建立反帝聯合戰線宣言>(1924, 1.6) 《孫中山全集(9)》, 23쪽.

31) 任公, <滅國新法論>, 《清議報》, 第八十五冊(1901年7月16日), 第八十六冊(1901年7月26日), 第八十九冊(1901年8月24日). 제국주의론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19세기 말 정관잉(鄭觀應)이 상전(商戰)이라는 개념을 제기한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 열강의 대중국 경제적 침략에 주목하고 상업을 통해 중국을 쇠약하게 하거나 멸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鄭觀應, <商戰>, 《盛世危言》, 遼寧人民出版社, 1994, 238-245쪽; 譚嗣同, 《譚嗣同全集》, 北京: 三聯書店, 1954, 289, 292쪽; 汪康年, <論西人處置東亞之意>, 《戊戌變法(三)》,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7, 143쪽; 麥孟華, <公司>, 《戊戌變法(三)》, 上海人民出版社, 1957, 116쪽; 唐才常, 《唐才常集》, 北京: 中華書局, 1982, 6쪽 등 참고. 그러나 청말 시기는 이러한 경제적 침해를 자유경쟁에서 중국이 뒤졌기 때문이라고 본 반면 1920년대는 경제적 침해는 제국주의의 침탈이며 그로 인해 중국의 경제발전이 더 지체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청말 시기와 1920년대의 제국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에도 차이가 있다. 청말 시기는 주로 정치적인 개혁과 경제적인 발전을 통한 제국주의와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자 했다면, 1920년 이후는 국민당과 공산당은 모두 열강을 대상으로 한 정치투쟁을 통해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32) <三民主義>, 《孫中山全集(9)》, 201쪽.

(汪精衛)이다. 그는 제국주의를 일종의 식민지에 대한 목적과 수단이라고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나서, 곧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19세기 공업선진국의 자본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제국주의는 단순히 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지배나 침탈이 아니라 19세기의 특유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과거의 단순한 군사적인 침략으로 다른 왕조나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 생계를 끊고 멸종시키는 것이었다.³³⁾ 그에 의하면 기계발명과 공장제도로 생산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또 자본제도의 결과로 자본과 생산수단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또 국내의 자본제도가 성공하여 생산력이 지나치게 팽창하게 되면, 과잉생산과 원자재의 부족현상이 출현하여 해외에서 수출시장과 원료 공급처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식민지를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³⁴⁾ 만약 식민지의 국민이 저항을 하면 정치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세력범위로 만들거나 직접 보호국 혹은 보호지역으로 삼고, 또 불평등조약을 통해 그 지역의 모든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결국 제국주의 목적은 경제적인 침탈이며, 정치적인 우세한 힘과 군사력은 시장과 원료공급지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다.³⁵⁾

이와 같이 중국에서 제국주의를 경제적 침탈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구 열강 및 일본의 중국에 대한 주권 침탈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현저했기 때문이었다. 또 당시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유행하던 제국주의 개념은 전통적인 황제의 통치체제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주로 타민족이나 국가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배로 이해하고 있었다.³⁶⁾ 이러한 대중적

33) 汪精衛, 《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 北京國際問題研究會, 1925, 6쪽.

34) 汪精衛, 《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 北京國際問題研究會, 1925, 1-3쪽.

35) 汪精衛, 《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 4-7쪽.

36) 1925년 사망한 국민당 좌파 리오중카이(廖仲愷) 역시 제국주의를 설명할 때, 황제의 통치체제나 1870년 이전과 같이 한 민족국가가 다른 민족국가를 침략하는 정치적인 침략과 달리 근대적 제국주의는 한 민족이 정치·경제적으로 타민족을 억압하는 것이며, 그 중에

인 제국주의 개념으로 중국을 보면 중국은 식민지가 아니거나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있어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받는 주권국가(혹은 반주권국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은 약해질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중국의 주권 침탈이 경제적인 면에 중점이 있는 반면, 그러한 경제적 침해가 제국주의의 수탈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공산당과 국민당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 침해를 제국주의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강조했던 것이다.³⁷⁾

4. 불평등조약과 피압박의 역사

1920년대 중국에서 제국주의론은 바로 중국의 현대적인 민족주의의 시작이었다. 청말시기 민족주의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민족주의 즉 서구를 배워 서구를 따라잡기 혹은 넘어서기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그 방법은 안으로부터의 철저한 각성과 개혁 혹은 내부의 이민족인 만주족의 축출이었다. 세력권을 내세운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의 분할의 원인을 중국 내부로 돌리는 것은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것이지만, 이는 또한 서구의 중국에 대한 간섭이나

서도 경제적 억압이 더 중요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라오중카이는 1870년 이전 정치적 침략은 한(漢)대나 윈나라와 같이 제국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제국주의라기보다는 민족의 형성과정이며, 1870년 이후 경제적 침략을 목적으로 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제국주의라고 보고 있다. 1924년 말 4차례의 강연을 위해 쓴 이 글은 왕징웨이의 《초고》와 논점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왕징웨이가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廖仲愷, <帝國主義侵略史譯>, 《廖仲愷集》, 中華書局, 1963, 205, 209쪽.

37) 한편 1920년대 후반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수용한 사회주의자 및 좌파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은 《帝國主義與中國》(高爾松, 高爾柏 編, 青年政治宣傳會, 1925; 上海新文化書社, 1926); 《反帝國主義》(反帝國主義大聯盟編輯, 時中合作書社, 1926); 《帝國主義與中國》(常書林, 世界書局, 1927); 《帝國主義史》(童致楨, 商務印書館, 1930) 등이 있다. 이 저서들은 모두 레닌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의 두 저서는 여러 논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서 당시 제국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토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중국은 제국주의론을 통해 서구 열강의 침탈을 중국의 쇠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자학적”이라 할 수 있는 이전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대외적인 저항을 위한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청말 혁명과는 만주족 왕조를,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군벌을 제국주의에 아부하거나 결탁한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³⁸⁾ 제국주의론은 곧 국내 혁명의 정당성, 더 나아가서는 중국 통치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1930년대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에 맞선 항일 전쟁이 있기 전까지, 반제국주의 운동의 핵심은 불평등조약의 철폐였다. 1925년 국민회의의 국제문제에 관한 선언문을 기초한 왕징웨이(汪精衛)가 최종적으로 내세운 주장 역시 “불평등조약 폐지”, “제국주의 타도”, “중국국민혁명의 성공”, “중화민국의 독립과 평등자유”였다.³⁹⁾ 뿐만 아니라 초안에서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 내의 제국주의의 세력 확장 과정을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사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초안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초안이 범 국민회의의 선언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짧은 기간에 전사회의 대중담론으로 확산되었다.⁴⁰⁾ 그 담론은 실천과 이념 두 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천은 조약 당사국

38) 1920년대 국민혁명군의 복벌시기 군벌과 제국주의에 대한 결탁관계에 대한 비판은 王建偉, <1920年代“打倒軍閥”口號的歷史遭際>, <江蘇社會科學> 2012年3期 참고.

39) 汪精衛, <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 126쪽. 초안에서 폐지하거나 평등한 관계 하에서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상실한 모든 영토의 회수, 2) 이전 중국의 번속, 예를 들어 조선, 안남(베트남) 등은 독립·평등을 회복하고, 그 국가들이 중국과 연방을 구성할지 여부는 그들의 자유에 맡길 것, 3) 모든 조계지의 회수, 4) 모든 조차지 회수, 5) 중국 영토에 외국에 귀속된 모든 철도와 그 부속지의 회수, 6) 현재 베이징 공사관 구역제도를 폐지하고 그 군사설비와 주둔군 및 경찰권을 철폐할 것, 7) 모든 세력범위 규정 철폐, 8) 중국 영토 내의 외국 군대와 경찰 주둔 허가 철폐, 9) 중국내 강(江)에서의 외국 선박 항해권 회수, 10) 영사재판권 철폐, 11) 관세 자주. 汪精衛, <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 124-125쪽.

40) 필자가 참고한 <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은 1927년 1월에 발간된 것으로 이미 7쇄본임을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초안은 <帝國主義侵略中國的趨勢和變遷概論>(汪兆銘, 國民黨平津衛戍總司令部黨部, 1925年版)과 <打倒帝國主義>(國民革命軍總司令部政治部印行(출판년도 미상))와 같이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어 유통되기도 한 것을 보면 당시 위 초안에 대한 사회적인 반향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打倒帝國主義>에는 위 초

에 대해 조약개정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념은 새로운 역사서술을 통해 진행되었다.

소위 불평등조약이란 아편전쟁 이래 1920년대 초까지 서구 및 일본과 체결된 일련의 조약, 특히 난징조약, 텐진 및 베이징조약과 마관조약(시모노세키조약), 신축조약 등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과 같은 전쟁의 패배의 결과 불리한 상황에서 체결된 조약을 가리킨다. 1920년 이전 중국은 이러한 조약들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수단이자 불공정하다는 인식과 함께 조약개정을 추진하였지만 명확히 불평등조약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법상 불평등조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평등한 조약이라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조약체결의 당사자인 두 국가가 자유로운 의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유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불평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전쟁패배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중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불공정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920년 이전 매우 드물지만 불평등조약이라는 용어는 왕징웨이(王景惠)가 쑨원의 제안으로⁴¹⁾ 입헌파의 만만주족 혁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가운데 사용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혁명군이 성공하면 각국이 만주정부로부터 얻은 권리를 모두 잃게 되기 때문에, 각국은 반드시 만주정부를 유지하려 하고 혁명군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국제법을 모르는 소치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조약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여전히 지속된다. 비록 구정부가 전복되더라도 새로운 정부는 그것을 계승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약은 국가의 명의로 체결된 것이지 개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만주정부가 무능한 외교로 각국과 체결한 각종 불평등조약을 철폐하거나 개정해야만 하는 것은 실로 새로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규교체로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혼동될 수 없다(강조는 인용자).⁴²⁾

안과 <不平等條約>이라는 문장 등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국민혁명군총사령부정치부는 1925년 광저우국민정부군사위원회 산하에 두었던 기구로 국공합작이후 공산당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곳 가운데 하나이다.

41) 胡漢民, 《胡漢民自傳》, 傳記文學出版社, 1982, 18쪽.

왕징웨이와 이러한 주장은 당시 쑨원 등 혁명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 불평등이란 용어가 불공정하다는 의미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주권평등의 국제법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불공정한⁴³⁾ 조약 체결의 주요 원인이 만주정부의 무능함과 중국의 자립능력의 결여에 있고, 형식상으로도 조약은 국가 간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조약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자립능력을 심대하게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성이 곧 조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조약의 철폐 혹은 개정도 중국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외교를 발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물론 왕징웨이의 주장은 당시 혁명은 서구의 개입을 초래하여 오히려 중국이 외세에 의해 분할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혁명으로 인한 서구의 개입이나 분할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구 및 일본과 체결한 각종 조약에 대해 혁명파나 입헌파 모두 중국의 자강을 통한 서구와 대등한 외교적 지위 확보,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권 수호,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조약의 개정 혹은 철폐 등 거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42) 精衛, <革命決不致瓜分說> (1906), 《汪精衛集》第一卷, 光明書局, 1929, 108-109쪽. 한편 당시 중국 지식인들 가운데는 국제법이 국가 간 주권의 대등, 공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후한민(胡漢民)은 각국의 교류는 국력의 차이로 대등하지 못한 조약(“不平等之約”)을 맺고 있어, 국가의 세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조약상의 “평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漢民, <排外與國際法>, 《民報》第10號, 1906, 20, 32쪽.

43) 중국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청말 시기에도 이미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말 일본이 서구와 조약개정을 이룬 이후 중서 간의 조약의 불공정성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성은 패전국에게 강요된 조약이라는 합의와 함께 중국에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항이나 조약 내용이 설령 형식적인 상호성에 의거하고 있을지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무용한 조항들을 가리킨다. 당시 조약의 불공정성과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쟁지찌(曾紀澤)의 일기와 구웨이권(顧維鈞)의 학위 논문 참고. 曾紀澤著, 喻嶽衡點校, 《曾紀澤遺集》, 長沙: 嶽麓書社, 1983, 387-388쪽; Vi Kyuin Wellington Koo(顧維鈞), *The status of aliens in China (Studies in History, Economics and Public Law)*. Edited by the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of Columbia University: Vol. L, No. 2 (No. 12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12.

1920년대 불평등조약 담론은 이와 달리 단순히 공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약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평등조약은 여전히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월”하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⁴⁴⁾이라고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제법의 허용 범위 내의 상호 대등한 조약이라도 각 국가가 처한 조건을 무시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또는 규정에 대한 일방적 곡해나 강압적 행동을 기정사실(fait accompli)화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확대하여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었다.⁴⁵⁾ 그러나 보다 중요한 담론의 변화는 제국주의론의 시각 하에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불평등 조약이란 국력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 다시 말해 국가 간 적자생존 내지 민족의 무한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약소국가 혹은 민족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팽창함에 따라 제국주의가 타국을 침탈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 즉 무력으로 직접 타국의 정권을 탈취하지는 않지만, 협박과 기만의 방식으로 약소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으로 간주되었다.⁴⁶⁾ 이러한 침략성에 대해 약소국가 혹은 식민지는 무력하게 인내하거나 자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불평등조약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담론은 2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국민당이 중심이 된 정부 차원의 불평등조약 개정 혹은 철폐의 추진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대외적 협상력을 높이고 정부의 대내적 통치권을

44) 周鯨生, 《不平等條約十講》, 上海: 太平洋書店, 1929, 10-12쪽.

45) 吳昆吾, 《不平等條約概論》, 商務印書館, 1933, 1-2쪽.

46) “그들이 우리 중국을 침략하는 방법은 협박과 기만의 수단으로 우리 어리석은 정부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여 권리는 그들이 갖고 의무는 모두 우리에게 돌리고 나서 ‘조약 존중’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에게 대해 정당하게 침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모를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쑨중산 선생과 그의 중국 국민당의 동지들이 각처에서 선전한 결과 일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으며, 5·30참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의 동포들이 갑자기 제국주의를 배척해야하고 불평등조약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張廷瀛講演, 高爾松筆記, 《不平等條約的研究》, 光華書局, 1926年版, 2-3쪽.

강화하기 위해 관과 민이 상호 연계하여 피억압 혹은 수난의 역사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국민당은 1923년 청조가 누차 중국민족의 권리를 희생시키며 각국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결과 중국은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는 인식하에, 마땅히 조약을 개정하여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회복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⁴⁷⁾ 불평등조약의 철폐를 당의 정강으로 채택하였다. 1924년 댜치루이(段祺瑞)의 남북협력을 위한 토론회 참가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국민당이 제시한 조건도 “국민회의 소집”과 “불평등조약 철폐”였다. 그리고 1927년 북벌의 완료와 함께 장제스의 국민당은 관세 주권을 포함하여 불평등조약의 취소와 개정을 선언하고, 1928년에는 기존 조약 중 만기가 된 것은 마땅히 폐지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 만기가 안 된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선언하였다. 같은 해 국민당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로서 미국과의 협정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과 관세관련 협정을 진행하여 1930년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였다. 또 조계지의 경우에도 한커우(漢口), 주강(九江), 진장(鎮江)의 영국조계지와 텐진의 벨기에 조계지 등 일부 조계지 역시 1930년 이전에 회수되었다. 한편 상하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계지와 영사재판권 등 문제도 협의 의제로 삼고 추진하였으나 1930년대 일본의 만주 및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과 제2차 세계대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홍콩을 제외한 완전한 불평등조약 철폐 혹은 개정은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미국 및 영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⁴⁸⁾

47) <中國國民黨宣言>, 中國國民黨中央宣傳部編, 《中國國民黨歷年宣言彙刊》, 上海: 鄉雲圖書公司, 1928, 37쪽. 중국 공산당 역시 1924년 8월 국민정부와 국민회의에 대해 “廢除一切不平等條約”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中國共產黨對於時局之主張>,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第一冊(1921-1925),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306쪽.

48) 불평등조약의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1943년 미국 및 영국과 새로운 평등한 조약체결을 경축하기 위해 발간된 《廢約運動始末》(宋家修·鄭瑞梅 編著, 출판사 미상, 1943, 34-42쪽)과 최근 연구 《中國廢除不平等條約的歷程》(王建朗, 江西人民出版社, 2000); 《中國廢約史》(李育民, 中華書局, 2005) 참고. 1927년 이전 불평등조약의 철폐 내지 개정 사례는 1920년 이후 소련의 자진 철폐와 패전국 독일과의 개정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예외

이러한 조약개정은 단순히 외교적인 노력만으로 얻은 성과는 아니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주도하에 1924년 베이징과 상하이로 중심지로 수십 개의 단체가 참여한 반제동맹(反帝同盟)이 결성되고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조약철폐와 주권회복 운동을 확산시켰다. 특히 1925년 중국학생이 영국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 사건을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가 “불평등조약” 통해 중국을 지배한 결과로 간주하고 불평등조약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의 전 계층으로 확산되었다.⁴⁹⁾ 당시 외교관과 같이 법리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조약 문제를 접근하는 논자들은 당사국과의 협의와 동의를 통한 개정 혹은 철폐를 주장하였지만, 거리에서의 대중들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구호가 지배적이었다.⁵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불평등 조약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제국주의-주권회복은 중국의 통치권의 합법성을 가늠하는 새로운 근거이자 정의와 불의, 공리(公理)와 강권, 애국과 매국, 혁명과 반혁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북벌 마지막 몇 년 동안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세운 구호도 바로 “제국주의 및 그것과 결탁한 군벌의 타도”, “불평등조약 철폐”, “국민혁명”이었고, 베이징 군벌정부의 서구열강과의 교섭과정에서의 타협적인 태도는 베이징 정부 통치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⁵¹⁾

적인 주권회복은 불평등조약의 전반적인 철폐운동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 49) 秋白, <帝國主義之“五卅”屠殺與中國的國民革命>, 《向導》 第119期, 1925年6月22日; 秋白, <國民會議與五卅運動——中國革命史上的1925年>, 《新青年》 第3號, 1926年3月25日.
- 50) 王建偉, <“廢除”還是“修改”——五卅時期關於“不平等條約”問題的論爭>, 《學術研究》, 2009年第11期, 123-128쪽.
- 51) 賈伯濤, 《蔣中正先生演說集》, 上海: 三民出版社, 1925, 96-102쪽; 《革命文獻》 卷69, 台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78, 177-179쪽; Robert. T. Pollard, *China's Foreign Relations, 1918-1931*, New York: MacMillan, 1933, p.295. 불평등조약에 대한 윤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불평등조약은 청정부가 중국인을 외국에 넘긴 인신매매계약이자 쇠사슬로 이를 폐지하는 것만이 중국의 유일한 활로이다”라고 한 다음 논문 참고. 程維嘉, <廢除不平等條約問題>, 《東方雜誌》 23卷12號, 1926.12, 5-23쪽. 1920년 “불평등조약”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Dong Wang, “The Discourse of Unequal Treaties in Modern China”, *Pacific Affairs*, Vol. 76, No. 3 (Fall, 2003), pp. 399-425 참고.

1920년대 중반 제국주의론과 불평등조약 철폐가 중국의 새로운 근대국가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준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적인 선전 이외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담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중국의 근대사를 불평등조약으로 점철된 비통한 수탈사로 보는 서사작업이었다. 1920년 전반기까지 중국사는 주로 19세기 이전까지가 서술대상이었으나, 1925년 이후에 19세기 이후 역사에 대한 서술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이 시기 근대사 편찬이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역사 서술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라는 결과를 만들어 온 과정을 사건의 인과관계를 통해 구성하는 과정이라면, 역사 서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 시기에 근대사에 대한 서술의 급증은 그 작업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에 비해 현재의 역사적 성격과 그 변화방향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식의 형성에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앞서 살펴본 제국주의론이었다. 둘째, 역사 서술의 관점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제국주의론에 의거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직접적인 제목으로 삼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사가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⁵²⁾ 주권 침탈은 영토의 할양과 정치적, 경제적 주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침탈사가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 청조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만주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주권을 넘겨준 제국주의 주구로 묘사하였다.⁵³⁾

5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은 본고의 참고문헌 참고.

53) 이러한 역사서술의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류엔(劉彦, 1880-1941)이다. 1907년 청정부의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쑨원이 이끄는 동맹회에 가입하여 혁명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1911년 《中國近時外交史》를 출판하였다. 또 1917년 이후에는 21개조를 내세운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분석하여 《歐戰期間中日交涉史》(上海: 太平洋印刷公司, 1921)를 출판하고 태평양회의에 중국 대표단의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북벌전쟁 시기에는 위의 두 저서를 수정하여 《帝國主義壓迫中國史》(上海: 太平洋書店, 1927)라는 서명의 합본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1928년과 1932년에 각각 《被侵害之中國》(上海: 太平洋書店, 1928)과 《最近三十年中國外交史》

이와 같은 청조와 위안스카이 및 군벌의 통치시기를 제국주의의 압박과 수탈사로, 그리고 국민당 및 공산당의 출현 및 통치시기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및 승리의 역사로 서술하는 것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역사서술에서 매우 일반화된 방식이었다. 그 중에서 항일전쟁과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의 시기도 있지만, 중국 역사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은 주로 불평등 조약을 주요 방법으로 삼고 있으며, 불평등조약의 개정 혹은 폐지의 역사는 곧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 민족의 저항이자 투쟁의 역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사서술이 근 1세기 동안 중국인의 집단적인 상상과 인식을 형성하면서 역사의식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제국의 기억과 민족주의의 탈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역사인식을 형성한 중요한 지식은 바로 제국주의론이었다. 1927년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으로 이념적인 대립 갈등을 겪으면서도 제국주의 시각 하에서 중국의 근대사를 해석하는 동시에 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다.⁵⁴⁾ 중국의

(上海: 太平洋書店, 1932)를 출간하였다. 1911년 그의 저술의 목적은 국제적인 중대사를 중심으로 본 중국의 “외교 실패사”였다면, 1925년 이후에는 그 제목의 변화에서 보여주듯이 제국주의 침략사로 중점이 변화하였다. 그가 제목을 수정한 이유로 “약소국은 외교가 없고 단지 압박을 당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반식민지의 관계는 형식적인 국가 교섭을 빌린 제국주의 억압과 수탈에 다름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被侵害之中國》은 제목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제국주의 타도, 불평등조약 철폐 운동에 부응하여 불평등조약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위해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부제인 “중국을 주권하는 불평등조약(中國主幹之不平條約)”이 잘 말해준다. 《最近三十年中國外交史》는 20세기 초 30년간 제국주의 압박 하에 중국의 세계적 지위의 변화 원인을 설명하고, 불평등조약의 개정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침탈사가 아니라 외교사라고 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피동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열강에 저항하고 불평등조약의 개정 등을 통해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4) 1943년, 즉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남경조약 100주년 되던 해 미국 및 영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장제스는 불평등조약의 폐지는 “중화민족이 기사회생한 중요한 한

근대사를 주권 침탈사로 등치시켜 보는 것은 역사를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크게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 현대중국의 역사인식 혹은 자아의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 및 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프리즘이 필요하지만, 그 기본틀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20년 후반에서 1930년 전반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사상과 학술 모든 부분에서 현대 중국의 토대를 확립한 시기로 청말 시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와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국주의 개념이다. 중국에서 제국주의는 20세기 초에 어휘사전에 편입된 이후 국가 간의 관계와 세계질서의 성격 및 변화를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세계 및 자아인식은 제국주의에 대한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세계인식에 대한 변화도 제국주의 관념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담론의 장에서 제국주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담론의 장을 주도하는 중심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제국주의가 부각된 것은 서구나 일본의 사상조류와 같이 제국주의를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강력한 타자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제국주의론을 담론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곧 민족주의였다.

중국에서 민족주의 개념과 담론은 제국주의 개념과 동시에 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와 연계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종과 종족의 차이나 종족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대 세

페이지”라고 선언하였다. 그에 있어서 불평등조약은 서구 열강이 중국의 생기를 압살하는 속박이자 국치의 기록이었다. 蔣介石, 《中國之命運》, 重慶: 正中書局, 1943, 118, 10, 13쪽. 참고로 장제스는 1925년 전후 시기에는 서구 열강을 제국주의로 통칭하다가, 1930년대 대일본 항전시기에는 서구 열강과 연합을 고려한 듯 제국주의를 주로 일본에 대한 지칭으로 사용하고 서구에 대해서는 국가명이나 열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후 1940년대 말에 제국주의라는 호칭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제2차 국공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이후 냉전의 시기로 진입하던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수사였다.

계질서를 구성하는 주체가 민족이고 민족 간의 경쟁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나 종족, 개인의 존망을 결정하는 동력이자 원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근대적 민족주의가 가능하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수용된 제국주의는 바로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확장된 개념이었다. 따라서 각 인류 집단은 생존을 위해서는 민족을 구성하여 자존능력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팽창해 오는 다른 민족적 제국주의에 저항해야 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존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러서 대외적인 팽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0세기 초 민족주의는 식민지라고 할지라도 잠재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민족의 발전은 직선적인 단일한 문명의 길을 따라 발전한다는 문명관과 역사관이 더해지면, 피억압의 집단에게 있어 세계열강의 제국주의는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20세기 초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일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중국의 입헌파든 혁명파든 모두 대중국 민족주의 혹은 한족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당시 민족주의에 내재된 윤리적, 이론적 곤경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곤경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문명의 전환은 민족주의 및 그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세기 20년대에 민족주의가 대중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모든 가치의 중국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의 땃줄 관계를 단절하여 윤리적, 이론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논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레닌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진영의 제국주의론이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단계이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전단계로 보고,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심적인 독점 자본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것이 “기생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식민지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연대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그의 중점은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사회혁명의 관점 이외에도 제국주의의 패권과 착취, 기생성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수용되었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는 각각 악과 선, 패권적 착취와 정당한 자기 권리 옹호, 과거의 역사 주체와 미래의 역사 주체, 파멸적 문명과 새로운 문명과 같은 수많은 이원적 가치를 대표하는 부호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 내 제국주의의 구체적인 존재방식이자 착취 방식을 “불평등조약”으로 개념화 하고, 그 대립 면에는 민족자결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의 주권을 내세웠다. 이렇게 제국주의의 부담을 벗어나 자유롭게 된 민족주의는 세계 속의 중국을 기존의 연약하고 무능한, 반(半)문명의 지위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지고 무상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중국의 피억압과 분할의 대상이었던 낡은 이미지는 이제 새롭게 수난을 이겨내는 순수의 이미지로 바뀌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순수한 이미지의 민족주의가 무비판적인 자기애로 고착될 때, 타자에 대한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24년 《민국일보(民國日報)·각오(覺悟)》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후, 역사가 멩썬(孟森)은 《신보(申報)》에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발표하여 제국주의를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제국주의는 고래부터 있어 왔으며, 중국에서 진시황과 한무제, 당태종, 원태조와 청대의 강희·옹정·건륭제 시기는 번속을 보유한 가장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던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스스로 식민지로 간주하는 것은 자기를 폄하하여 세계에서 중국의 지위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⁵⁵⁾ 멩썬의 이러한 주장은 레닌의 견해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의 관점은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공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중국 근대 역사서들에서 근대의 역사를 침략사, 영토 및 주권 상실의 역사로 서술할 때, “번속”지역으로 간주하던 베트남과 조선, 류큐, 그리고 버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다른 열강의 세력범위로 귀속되거나 독립한 경우를 중국 주권과 영토의 상실로 서술하고 있는 데서도 잘 보여

55) 心史, <帝國主義>, 《申報》 1924年6月22日.

진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론에서는 187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의 시기로 간주하면서도, 중국 역사서술에서는 아편전쟁부터 혹은 그 이전 명말 시기 서구와의 관계를 모두 제국주의 침략의 관점에서 서술하기도 한다.⁵⁶⁾

이는 중국에서, 제국주의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민족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제국주의를 그 대립적인 타자로 삼고 있지만, 실은 그 자신은 또 다시 민족 경쟁을 통한 주권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자기 절제와 반성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서구열강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힘을 갖추었다고 자신하는 순간, 중국의 민족주의는 자신에게 자유를 부여한 레닌을 버리고 다시 19세기 민족적 제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에 대한 기억은 민족주의의 탈주를 자극하고, 동시에 근대의 수난사는 그러한 욕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參考文獻 >

- A. James Gregor and Maria Hsia Chang, "Marxism, Sun Yat-sen, and the Concept of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55, No. 1 (Spring, 1982), Dong Wang, "The Discourse of Unequal Treaties in Modern China", *Pacific Affairs*, Vol. 76, No. 3 (Fall, 2003).
- Franklin H. Giddings, *Democracy and empire, with studies of their psychological, economic, and moral foundations*, New York: Macmillan, 1900.
- John M. Robertson, *Patriotism and Empire*, London, Grant Richards, 1899.
- Leonard Woolf, *Economic Imperialism*, London: The labour publishing co, Ltd., 1921.
- Mikhail Pavlovich, *The foundations of imperialist policy: a course of lectures read to the academy of the general staff in 1918-1919*, London: Labour

56) 근대 이후 중국의 영토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川島眞, <近現代中國における國境の記憶——本來の中國の領域をめぐる>, 《境界研究》 No.1(2010), 1-17쪽 참고.

Publishing Company, 1922.

Paul S. Reinsch, *World Politic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s Influenced By The Oriental Situ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London, Macmillan and co, 1900.

Richard Sorge, *Der neue deutsche Imperialismu*, Hamburg: C. Hoym, 1928.

Robert. T. Pollard, *China's Foreign Relations, 1918-1931*, New York: MacMillan, 1933.

V. I. 레닌 저, 남상일 역,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1986.

Vi Kyuin Wellington Koo(顧維鈞), *The status of aliens in China (Studies in History, Economics and Public Law*. Edited by the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of Columbia University: Vol. L, No. 2 (No. 12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12.

賈伯濤, 《蔣中正先生演說集》, 上海: 三民出版社, 1925.

葛靜波·張昭軍, <國民革命時期列寧《帝國主義論》的譯介與論爭>, 《中共黨史研究》 2019年09期.

高爾松·高爾柏編, 《帝國主義與中國》, 青年政治宣傳會, 1925(上海新文化書社, 1926).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等合編, 《孫中山全集(9)》, 中華書局, 1986.

譚嗣同, 《譚嗣同全集》, 北京: 三聯書店, 1954.

唐守常, 《帝國主義侵略中國痛史》, 大東書局, 1928.

唐才常, 《唐才常集》, 北京: 中華書局, 1982.

董森著, 《帝國主義與中華民族》, 光明書局, 1930.

童致楨, 《帝國主義史》, 商務印書館, 1930.

鄧實, <政治通論外篇4: 帝國主義>, 《政藝通報》, 1902.

列寧原著, 吳清友譯, 《帝國主義論》, 桂林新知書店, 1937.

列寧著, 변역사 미상, 《帝國主義論》, 中原新華書店, 1949.3.

列寧著, 李春蕃譯, 沈澤民校訂, 《帝國主義淺說》, 上海, 1925.

靈綬著, 羅普譯, 《十九世紀末世界之政治》, 廣智書局, 1902.

廖仲愷, <帝國主義侵略史譚>, 《廖仲愷集》, 中華書局, 1963.

劉師培, <無政府主義之平等觀>, 《天義》第5卷, 1907.8.10.

劉彥, 《最近三十年中國外交史》, 上海: 太平洋書店, 1932.

劉彥, 《被侵害之中國》, 上海: 太平洋書店, 1928.

劉彥, 《歐戰期間中日交涉史》, 上海太平洋印刷公司, 1921.

- 劉彥,《帝國主義壓迫中國史》,上海:太平洋書店,1927.
- 劉彥,《中國近時外交史》,上海:太平洋印刷公司,1921.
- 李育民,《中國廢約史》,中華書局,2005.
- 麥孟華,〈公司〉,《戊戌變法(三)》,上海人民出版社,1957.
- 民強書局編輯,《帝國主義侵略史》,民強書局,1927.
- 反帝國主義大聯盟編輯,《反帝國主義》,時中合作書社,1926.
- 拔夫羅維季著,王斐蓀譯,《帝國主義之諸家學說》,新生命書局,1933.
- 福克斯(Frank Fox)著,《帝國主義者在太平洋上之爭霸》,華通書局,1929.
- 浮田和民,〈帝國主義的理想〉,《國民教育論》,民友社,1903.
- 常書林,《帝國主義與中國》,世界書局,1927.
- 常書林,《帝國主義與中國》,世界書局,1927.
- 桑特爾著,劉沅儀譯,《新帝國主義論》,春秋書店,1930.
- 成則人(沈澤民),《第三國際議案及宣言》,廣州人民出版社,1922.
- 孫茂柏編,《帝國主義史》,中央陸軍軍官學校政治訓練處,1930.
- 宋家修·鄭瑞梅編著,《廢約運動始末》,출판사 미상,1943.
- 心史,〈帝國主義〉,《申報》1924年6月22日.
- 楊先鈞著,《帝國主義經濟侵略下之中國》,太平洋書店,1929.
- 에릭 홉스봄 저, 강명세 역,《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1998.
- 余一,〈民族主義論〉,《浙江潮》第5期,1903.6.15.
- 吳昆吾,《不平等條約概論》,商務印書館,1933.
- 吳君如著,《帝國主義對華的三大侵略》,民智書局,1929.
- 吳壽彭等編,《帝國主義侵略中國史》,中央陸軍軍官學校政治訓練處,1929.
- 烏爾佛(Leonardwoolf)著,《帝國主義與文化》,新生命書局,1929.
- 汪康年,〈論西人處置東亞之意〉,《戊戌變法(三)》,上海:上海人民出版社,1957.
- 王建朗,《中國廢除不平等條約的歷程》,江西人民出版社,2000.
- 王建偉,〈“廢除”還是“修改”——五卅時期關於“不平等條約”問題的論爭〉,《學術研究》2009年第11期.
- 王建偉,〈1920年代“打倒軍閥”口號的歷史遭際〉,《江蘇社會科學》2012年3期.
- 王保賢,〈關於“漢譯名著”《帝國主義》的出版時間〉,《中華讀書報》2019.12.18.
- 汪精衛,《汪精衛集》第一卷,光明書局,1929.
- 汪精衛,《國民會議國際問題草案》,北京國際問題研究會,1925.
- 汪兆銘,《帝國主義侵略中國的趨勢和變遷概論》,國民黨平津衛戍總司令部黨部,1925.

- 任公, <滅國新法論>, 《清議報》, 第八十五冊(1901年7月16日), 第八十六冊(1901年7月26日), 第八十九冊(1901年8月24日).
- 蔣介石, 《中國之命運》, 重慶: 正中書局, 1943.
- 張廷瀾講演, 高爾松筆記, 《不平等條約的研究》, 光華書局, 1926.
- 鄭觀應, <商戰>, 《盛世危言》, 遼寧人民出版社, 1994.
- 精衛, <駁革命可以瓜分說>, 《民報》第六號, 1906.7.25.
- 程維嘉, <廢除不平等條約問題>, 《東方雜誌》23卷12號, 1926.12.
- 趙京華, <福澤諭吉“文明論”的等級結構及其源流>, 劉禾主編, 《世界秩序與文明等級》, 三聯書店, 2016.
- 周鯁生, 《不平等條約十講》, 上海: 太平洋書店, 1929.
-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編, 《共產國際, 聯共(布)與中國革命文獻資料選輯》(1917-1925),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 中共中央統戰部編, 《民族問題文獻匯編》,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 中國國民黨中央宣傳部編, 《中國國民黨歷年宣言彙刊》, 上海: 鄉雲圖書公司, 1928.
-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第十冊(1934-1935),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第一冊(1921-1925),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第七冊(1931),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 曾紀澤著, 喻嶽衡點校, 《曾紀澤遺集》, 長沙: 嶽麓書社, 1983.
- 陳彬和, 《帝國主義侵略中國史》, 世界書局, 1927.
- 차태근, <20세기 초 동아시아 제국주의론의 세계인식 — 라인슈(Paul S. Reinsch)의 《세계정치》 및 번역을 중심으로>, 《中國學報》2018.8.
- 川島眞, <近現代中國における國境の記憶——本來の中國の領域をめぐる>, 《境界研究》No.1(2010).
- 秋白, <帝國主義之“五卅”屠殺與中國的國民革命>, 《向導》第119期, 1925年6月22日.
- 秋白, <國民會議與五卅運動——中國革命史上的1925年>, 《新青年》第3號, 1926年3月25日.
- 出洋學生編輯所編譯, 《帝國主義》, 商務印書館, 1902.
- 湯麥斯蒙(Parker Thomas Moon)著, 《帝國主義與世界政治》, 新生命書局, 1931.
- 土佐幸德秋水撰述, 趙必振譯, 《二十世紀之怪物帝國主義》, 廣智書局, 光緒二十八年(1902).
- 巴波魯著, 朱則譯, 《帝國主義之政策的基礎》,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宣傳部出版, 1926.

- 布魯克(蘇)等合著, 鍾原昭譯, 《帝國主義論》, 上海雜誌公司, 1937.
- 布哈林著, 楊伯愷譯, 《世界經濟與帝國主義》, 辛墾書店, 1930.
-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8.
- 何若蘭, 《帝國主義與世界大戰》, 辛墾書店, 1936.
- 漢 民, <排外與國際法>, 《民報》第10號, 1906,
- 胡繼純·謝德風 編著, 《民族自決問題》, 商務印書館, 1937.
- 胡石明編, 《帝國主義殖民政策概要》, 大東書局, 1929.
- 胡學顯編, 《帝國主義侵略史》, 中央陸軍軍官學校特別訓練班, 1936.
- 胡漢民, 《胡漢民自傳》, 傳記文學出版社, 1982.
- 華爾富著, 謝義偉譯, 《經濟帝國主義論》, 上海: 商務印書館, 1931.
- 黃孝先, 《帝國主義侵略中國史》, 商務印書館, 1928.
- 《打倒帝國主義》, 國民革命軍總司令部政治部 印行(출판년도 미상).
- 《革命文獻》卷69, 台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78.

< Abstract >

Imperialism and a View of History as National Ordeal:
Focused on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Early Republic of China

Cha, Taegeun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f Chinese people's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themselves through Chinese imperialism discours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mperialism is a theory related to the system that is formed between the central and peripheral states of the world and between them. Therefore, imperialism is the theory of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 concept, Chinese imperialism have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world order and China's position in the world, and sought a direction for China.

Imperialism in China shows a great deal of difference before and after 1920.

Before 1920, imperialism was closely related to Western civilization and modernism. Also, by recognizing imperialism as derived from nationalism, imperialism was not just a critical object for the Chinese pursuing nationalism. Imperialism was a cause of pain for China, but also a model to imitate. Since the 1920s, however, in accepting Lenin's imperialism, imperialism wa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overthrown that prevents and suppresses the development of the people of a small and weak power, not the future model of them. Lenin's imperialism, in particular, regarded nationalism as a fair and just right that separate from imperialism and resists imperialism as a critical object. In this view, the Chinese defined the treaties between China and the West since the Opium War as an unequal treaty, and criticized imperialism as the main way to oppress and rule weaker countries. The KMT and the Communist Party set nationalism against imperialism as an important ideology justifying China's rule, and actively promoted ideological propaganda to gain support from the people and the masses. One of the main ways was to describe China's modern history as a history of exploitation by Western imperialism. But China's nationalism, which established unconditional self-justification, shows a tendency to pursue external expansion through national competition, as in the late 19th century. Absolute recognition of nationalism weakens the reflection on the problems that nationalism may have.

Key words: imperialism, nationalism, Lenin's imperialism, unequal treaty, civilization, a history of sufferings, national ordeal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 31.	2020. 2. 7.	2020. 2. 21.	2020. 2. 27.	2020. 3. 31.

